

순창군, '재해펀딩'으로 위기 농가 구한다

전북우정청과 공동 출시·운영
호우피해 농가 농작물 선구매
추석 전까지 우체국쇼핑몰서 판매

? 재해펀딩
자연재해 등 피해를 받아 어려워진 농업인 등에 소비자가 선구매를 하고 농업인은 농작물을 재파종 후 수확 시기에 맞춰 농작물 또는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순창의 한 미니리농장을 돕기 위해 순창군과 전북우정청이 '재해펀딩'을 출시, 운영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호우 피해를 입은 순창지역의 한 농가가 '재해펀딩'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눈길을 끈다. 15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전북우정청과 함께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순창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재해펀딩'을 출시, 운영하고 있다. 순창지역은 지난달 8일 기록적인 호우로 삼진강이 범람해 21ha가 침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순창의 가이아농장도 수해를 당했다. 최상품 유기농 미니리를 재배하는 가이아농장은 재배면적 6600㎡를 포함한 가공장·체험장 등 각종 시설이 모두 물에 잠겼다. 수확 예정이었던 30여의 미니리는 모두 손실, 피해가 극심했다. 순창군은 다양한 구제방안을 고심한 끝에 전북우정청과 '재해펀딩'을 운영하기로 협약, 펀딩을 출

시했다. 소비자들이 이 펀딩을 구매하면 가이아농장은 그 비용으로 미니리를 파종하고 수확해 펀딩 구매자에게 미니리와 미니리즙을 배송하게 된다. 펀딩 금액은 피해 농가의 긴급 경영자금으로도 지원한다. 순창군은 평소 인기가 많은 가이아 농장의 상품을 평소보다 30~40%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진 만큼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재해펀딩은 14일부터 추석 전까지 우체국쇼핑몰을 통해 운영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순창지역 주민들이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순창 구립면송아지 릴레이 기증 눈길

4회째 이어져...농가 경제자립·기부문화 확산 '일거양득'

순창군 구립면이 4회째 송아지 릴레이 기증행사를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농가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은 물론 기부문화 확산으로 이어져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15일 순창군에 따르면 구립면민회는 지난 11일 구립면면복지센터 광장에서 지역주민에게 송아지 4마리를 전달하는 릴레이 송아지 기증행사를 열었다.<사진> 이 행사는 지난 2014년 제13회 면민의 날에 시작됐다. 2년마다 열리는 면민의 날에 맞춰 경제적으로 어려운 면민을 선정해 송아지 1마리씩을 전달한다. 특히 첫 해 송아지 3마리에서 시작했던 행사는 올해 5마리로 늘었다. 이날 송아지 4마리는 현장에서 전달했으며 나머지 1마리는 추후 전달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농가는 송아지를 키우며 자립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



가다. 또 송아지를 받은 농가를 새끼를 낳으면 다시 면민을 위해 송아지를 기부하다 보니 지역사회에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조길주 구립면민회장은 "송아지를 기부한 윤효섭·김영섭·서재현 씨와 올해 행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송아지 한마리를 추가로 기부한 조동용 씨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 행사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남원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대상 선정

문화재청이 남원시 유곡리·두락리 등 가야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에 선정했다. 15일 남원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남원·합천·김해 등 가야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결정했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을 포함한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최종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가야 고분군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사적 제542호)을 비롯해 합천 옥전 고분군(사적 제326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사적 제341호), 함안 말미산 고분군(사적 제515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제7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사적 제119호), 장영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사적 제514호) 등 7개 유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국내 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까지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최종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면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의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세계유산위원회가 2022년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에 선정된 남원시 유곡리 가야 고분군 전경.

전국기능경기대회 군산서 개막...온라인 비대면 개최식

국내 숙련기술인들의 축제인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지난 14일 개막했다. 고용노동부, 전북도, 전북교육청은 이날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최식은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도별 선수 소개와 정세균 국무총리 축하 등은

미리 촬영한 영상을 내보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컨벤션센터에 설치된 스튜디오에서 토크쇼를 했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를 포함한 전북지역 7개 경기장에서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산업용 로봇 등 50개 직종에 1778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군산=박규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내년 9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46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을 준다. 국가기술자격인 산업기사 실기 시험 면제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주최 측은 대회 기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종별 경기장 출입 인원을 50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산=박규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코로나19·집중호우...온정의 손길 잇따라

서평테크, 나주시에 PC모니터 100대 기탁

사회적기업 ㈜서평테크가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며 나주시에 PC모니터(21인치) 100대를 기탁했다. 서평테크는 나주시 빛가람동에서 데스크톱 컴퓨터, LED모니터를 주력 상품으로 제조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안효순 서평테크 대표는 "코로나 장기화로 더 힘든 상황에 놓인 주민을 위해 소소한 도움이 되고 싶어 PC모니터를 기탁하게 됐다"며 "경제적 형편으로 비대면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위한 컴퓨터 기부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기부물품을 지역 저소득층 가정과 사



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스마트테크, 담양군에 코로나 마스크 1만장 기부

광주시 광산구에 소재한 마스크 제작업체 ㈜스마트테크가 최근 KF94 마스크 1만장(900만원 상당)을 담양군에 기탁했다. 김순재 스마트테크 대표는 "코로나19 감염증은 나 혼자만 아닌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기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지역 감염 차단이 필요한 시기에 기업이 지역을 위해 도움을 주 감사드립니다"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 등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환 기자 nyc@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